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의 좌우명이다. 구 소련을 굴복시키고 동서냉전을 종식시켰던 레이건 대통령, 남아공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쟁취했던 만델라 대통령이 70세를 넘어 뜻을 이뤘듯이 김 회장도 같은 세월을 넘겨 지난 5월에 병원계 수장에 올랐다. 그 소신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근원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2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병원계를 위해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의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의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8월 14일로 취임 100일이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취임하자마자 포괄수가 문제, 영상장비수가 재인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문제 등 병원계 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이에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병원계 현안을 위해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병원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IHF(국제병원연맹) 리더십 서밋과 AHF(아시아병원연맹) 이사회 등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의료정책 경향과 병원계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논의하는 등 국제적인 정보를 강화하는데도 노력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병원회를 돌며보고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점검했습니다.”

김윤수 회장은 바쁘게 뛰어다닌 결과물로 영상장비수가가 최소화해 이끌어 냈으며, 응급실 당직제는 전문의 ‘상주’ 대신 ‘On-Call’로 전환시키는 등 병원계로서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죽을 각오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회장으로 활동을 해보니 앞으로 병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꼈다”며 “사즉생 심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전공의 및 의사노조 결성, 신임평가 등에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현안을 풀어가는데 있어 보건의료계가 힘

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의협과의 화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협회는 7개 질병군에 한에서만 합의한 것이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확대 및 질병군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시행에 대해서도 적정수가와 물가 및 임금인상률 반영과 같은 합리적인 수가기전을 조건으로 내세워 받아들인 것이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 의협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그리고 전공의 및 의사노조 결성, 신임평가 문제에 있어서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병협을 공격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김윤수 회장은 의협의 행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협과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는 김 회장은 이점을 의협도 분명히 알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병원계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보험수가도 문제지만 의사 및 간호사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인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게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현실입니



다. 작년 ‘의약분업제도개선 전국민서명운동’ 독려를 위해 전국 병원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많이 느껴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들을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장학생 제도’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지방에 근무하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가 정책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윤수 회장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병원들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008년 17.1%였던 중소병원 폐업률이 최근 20%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들어 해외 각국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영역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보면 12만명이 넘는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진료비 수입 역시 1800억원에 이르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거와 비교해 흑자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들립니다.

앞으로는 해외환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병원협회도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는 국제병원연맹(IHF)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김광태 명예회장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속에 한국의료를 알리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한 병원수출 및 의료관광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회원병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시도병원회 및 각종 중별 병원단체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세워 회원병원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년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에 나섰다가 병원계 화합이라는 대의 앞에 꿈을 접은 김윤수 회장, 그가 다시 도전해 뜻을 이뤘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병원계는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자기 몫 찾기에 골몰하다보니 어느 때보다도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상대해야 할 정부 및 유관단체는 과거보다 강한 힘과 전문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보니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인물이



필요했다.

이런 병원계의 절박한 위기 상황이 그를 선택자로 낙점했다. 회원들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적 이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일찍부터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선친(고 김숙현)으로부터 정치를 터득한 김 회장이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계는 국민과 정부로부터 그 동안 노력한 만큼의 인정이나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봉사 등 사회활동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아울러 국가 의료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병원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MP저널

김윤수 회장은 1967년 고려의대를 졸업후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79년에 서울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78년 일본 나라의대 정형외과 유학(미세혈관봉합술과정 수료) ▲87년 미국 크리브랜드의대 정형외과 유학(슬관절, 고관절 재건술 연구) ▲90년 미국 ASMI(관절경 연구) 과정을 마쳤으며, 79년 서울대윤병원장에 취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사회장(9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94년), 서울중소병원회장(95년), 고려의대 교우회장(2003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2008년), 서울시병원회장(2008년), 전국시도병원회장(2010년) 등 역임하는 등 의료계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육군 군진의학회 학술상을 비롯 노동부 장관 표창, 보건외교의 날 대통령 표창, 재정경제원 장관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교우회 자랑스런 호의상을 수상했다.